

Date: 2025.05.22

더페이지갤러리, 베를린과 다카르 기반 6인 작가 <가이아의 메아리> 그룹전 개최

-
- 2025 부산 비엔날레 바다 미술제 공동예술감독 김금화 큐레이터 기획
 - 전통적 의례와 신화에 영감을 바탕으로 생태의 위기 속 대지와 감각적 연결과 공명을 시도
 - 2023년 독일 케테 콜비츠상 수상한 산드라 바스케스 데 라 오라,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라포렐로 드로잉 신작 소개
 - 여성 억압, 정체성을 탐구하는 이란 작가 파콘데 샤루디 참여
 - 한국작가 지빅 리의 옷나무 작업, 독일계 터키 작가 비론 에를 베르트, 안나 슈타이너르트의 신작, 세네갈 출신 알리우 디악 소개
-

전시기간 2025년 5월 22일 (목) - 7월 26일 (토)

전시장소 더페이지갤러리 EAST 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2길 32-14 G205)

문의 info@thepage-gallery.com 02 3447 0049

더페이지갤러리는 2025년 5월 22일 부터 7월 26일까지 베를린 기반으로 활동하는 6인 작가 그룹전 《가이아의 메아리(Echoes of Gaia)》를 개최한다. 2025 부산 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공동 예술 감독 김금화 큐레이터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지구를 살아 있는 존재로 다시 사유하며, 예술을 통해 그 울림을 감각적으로 환기하는 여섯 명의 작가들: 알리우 디악, 지빅 리, 파콘데 샤루디, 안나 슈타이너르트, 산드라 바스케스 데 라 오라, 비론 에를 베르트를 소개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이아는 신과 인간, 모든 생명 존재를 낳고 숨을 불어넣는 원초적 어머니이자 대지의 신으로 불린다. 전시는 브루노 라투르가 『가이아를 마주하다(Facing Gaia)』에서 제시한 개념에 기반해, 가이아를 더 이상 수동적인 배경이 아닌 감각하고 반응하며 반격하는 능동적 존재로 상정한다.

21 세기의 지속적인 전쟁, 생태 붕괴, 인식의 혼란을 반영하듯, 가이아의 몸은 붕괴와 재생, 소멸과 출현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뒤틀리고 진동한다. 《가이아의 메아리》는 이처럼 생명과 소멸, 재생과 순환의 리듬 속에서 감각되는 대지의 울림을 예술을 통해 증폭시키고자 한다. 작가들은 치유, 중재, 변형의 가능성을 담은 예술적 몸짓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과 관계를 되묻는다.

작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베를린이라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시 환경 속에서 교차된 경험을 통해 다문화성, 혼종성, 나아가 포스트-인류세 시대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작업에 담아낸다.

전시는 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오늘날 '의례(ritual)'라는 행위가 단순한 반복이나 형식을 넘어, 치유와 변형, 그리고 중재의 예술적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작가들은 신체적 수행, 물질과 감각에 대한 민감한 개입, 신화와 전통 유산의 재맥락화를 통해, 동시대 예술이 인간과 비인간, 기억과 생태, 그리고 내면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전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베를린에서 진행된 Speaking to Ancestors (Co-Curator: Pauline Doutrougne)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실비아 윈터의 『의식은 발견되어야 한다: 휴머니즘 이후』(1984)와 한병철의 『의식의 소멸에 대하여』(2019)에서 이론적 영감을 받았다. 《가이아의 메아리》는 의례, 신화, 전통적 문화 실천이 어떻게 새로운 집단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며, 예술이 과연 사라지고 억눌린 존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불러오는 제례적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작가소개

1. 산드라 바스케즈 데 라 오라 (b.1967, Chile)는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지아르디니에서 소개된 밀랍 드로잉 작업으로 주목받았으며, 모든 드로잉 위에 밀랍을 덧입혀 주술적 상징성과 촉각적 물질성을 부여한다. 2024년 아카데미 데어 쿤스테(Akademie der Künste)가 수여하는 케테 콜비츠(Käthe-Kollwitz Preis) 상을 받았다. 2025년 11월,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 (Haus der Kunst, München)에서 회고전을 개최 예정이다.
2. 파콘데 샤루디 (b.1962, Iran)는 1990년 독일에 망명한 후, 인조 머리카락을 땀과 껌매는 명상적 수행 행위를 통해 억압된 여성성과 언어를 환기한다. 2022년 베를린 시 한나 회흐 상과 2023년 망명인 시각 예술상 (Exil Visual Award)을 수상했다.
3. 알리우 디악 (b. 1987, Senegal)은 다카르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연 안료를 흩뿌리는 의례적, 회화 행위를 통해 사헬 지역의 시간성과 생태적 리듬을 화면에 축적한다. 2016년 다카르 비엔날레, 2022년 아트 바젤 참여했다.
4. 지빅 리(b.1987, Korea)는 한국의 옷칠 장인과 협업하여, 옷나무의 수액을 눈물, 상처, 치유의 흔적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소멸의 순환을 시간의 물질로 기록한다. 2018년 빌라 로마나 아트 어워드 수상, 2021년 레클링하우젠 쿤스트할레 아트 어워드 수상, 요제프, 2023년 애니 알버스 재단 아티스트 레지던시 선정되었다.
5. 안나 슈타이너르트 (b.1983, Germany),는 회화와 오브제를 넘나들며 색채와 몸짓의 에너지를 탐구한다. 본 전시에서는 신작 설치 Mask Tree 와 회화 오브제를 선보이며, 가면의 상징성과 주술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6. 비론 에를 베르트 (b.1975, Germany)는 베를린 클럽 베르그하인에서 20년간 문지기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클럽 문화와 고대 신화의 상징체계를 결합해 전시장 전체를 감각의 의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김금화 큐레이터

김금화는 베를린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베를린, 서울, 부산을 오가며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이다. 포스트-인류세적 시선을 바탕으로, 비전통적 공간과 예술의 통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현재 김금화는 부산비엔날레가 주최하는 2025 바다미술제(Sea Art Festival 2025)의 공동 예술감독(Co-Artistic Director)으로 활동 중이다.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Aliou Diack, Jeewi Lee, Anna Steinert), Photo: Yang Ian,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Viron Erol Vert), Photo: Yang Ian,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Jeewi Lee, Illumination of the tears (눈물의 빛), 2025, Installation made of trees and LED lights, size variable, Photo: Yang Ian, Courtesy of The Page Gallery



Sandra Vásquez de la Horr, La Mujer de Arcilla (흙의 여인), Leporello, 212 × 78 cm, 2025, Photo: Lepkowski Studios, courtesy of the artist



Farkhondeh Shahroudi, Untitled, 2018, Artificial hair, bamboo, 75 × 14 × 18 cm / 60 × 10 × 8 cm, Dimensions variable, Photos by Rachele Salvioli



Aliou Diack, Pèlerinage #4 순례 #4, 2024, Mixed media on canvas
220 × 130 cm, courtesy: Morel Donou and OH GALLERY



Anna Steinert, Merging of Narratives (서사의 병합), 2024, Oil, oil stick on canvas, 170 × 14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Tanja Wagner, Berlin